

“단풍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보러오세요”

가을맞이 전남 문화행사 풍성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남지역에서 화려한 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는 11월 1~3일 까지 백양사에서 단풍축제를 겸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 풍광을 갖고 있는 것으로 꼽히는 장성 백양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행사를 마련해 누구나 즐겁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행사는 11월 1일 오전 10시 백양사 본·말사의 모든 신도들이 참여하는 보살계수 계산림법회를 시작으로 오후 1시 국악과 어울리는 문화공연, 2일 수안 스님의 사회로 진행되는 7080포크송, 3일 일반시민들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각각 개최한다. 행사 기간동안 쌍계루에서는 비구니 사찰인 천진암 스님들의 사찰음식 시연과 전시회를 갖는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는 천연염색, 단주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등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개최한다.

광주지역 불교계는 10월 16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지난 6월 입적한 범능 스님을 추모하는 음악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노래하는 스님인 범능 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지역 불교계 합창단이 연합해 불교음악을 선보인다.

특히 범능 스님은 생전 지역 불교합창단을 지도하며 부루나합창단 등 합창단 창단을 주도했다. 음악회에는 이런 범능 스님의 마지막 유훈을 담아, 스님의 유작앨범 '나 없으랴'를 비롯해 스님이 노래와 만든 곡들을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려줄 예정이다.



2012년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 본부가 진행한 무등산 옛길 희망걷기 대회 모습. 올해도 10월 20일 '제5회 대회'가 열린다.

화엄사 10월 19일 '화엄음악제'

백양사 11월 1~3일 7080음악회

범능 스님 연합합창대회도 열려

음악회에서는 고구려 시인의 진행으로 부루나합창단, 카일라스합창단, 중심사합창단, 원자사합창단, 길상사합창단, 심진 스님, 정을 스님, 이동원, 천음실내악단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구례 화엄사**는 10월 19일 세계적 영성음악가들을 초청해 내적 평화를 기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희망의 음악회를 연다. 올해도 여덟 번째를 맞는 '화엄음악제'는 '첫 번째 빛'을 주제로 빛의 의미인 영원한 자유와 사랑, 평화

의 메시지를 담은 세계 각국의 음악들이 다채롭게 선보인다.

음악회에는 소리의 생태학자로 불리는 독일 출신의 스테판 미쿠스 씨를 비롯해 전문 국악단체 정가악회, 음악가 정재일과 가입, 원일 씨, 싱어송라이터 가수 최고은 씨 등 국내외 정상급 영성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061)782-7600

이와 함께 단풍이 지는 무등산 자락에서 백혈병 환자들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걷기 대회도 열린다.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 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0월 20일 무등산 청풍실터에서 '제5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무등산 옛길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소아암백혈병 어린이 치료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무등산 청풍실

터에서 원효사에 이르는 5.35km를 걷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걷기 외에도 치료비 전달식, 문화공연, 백혈병환자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세지 전하기, 장기기증희망 등록접수, 헌혈증서 모집 및 모금 캠페인이 같이 진행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 관계자는 "무등산 산행을 통해 환우아이들을 위한 기원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참가자의 즐거운 산행의 의미도 담고 있다. 매년 스님을 비롯해 기업체, 불교단체, 시민들이 참여하여 환우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5천원으로 도시락과 식수가 제공되며, 참가자에 한해 선글라스, 비타민, 샴푸, 목욕용품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수 청암사, 주민 위한 요사공간 마련

여수 청암사(주지 지암)는 10월 5일 요사채 낙성식 및 포대화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취임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임제불교조계종 원로위원장 진도 스님, 부총정 자은 스님, 원로위원 석보 스님을 비롯해 임제불교조계종 주요 관계자와 신도 2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삼귀례, 반야심경, 봉행사, 법어에 이어 축하공연, 테이크팅 등이 진행됐다.

지암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청암사 요사채가 신도들의 신행생활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산 스님은 이날 법어에서 "수행은 삼독심을 태워버리는 것이며, 이것이 복밭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청암사의 새로운 공간에서 수행을 통해 복밭을 잘 가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완공된 요사채는 30평의 건물에 부엌, 화장실 등이 마련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청암사는 그동안 광주소년원, 전주소년원에서 '자비의 멘토' 등 교정교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 우두리 마을 어르신 초청잔치를 벌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지역 4대 종단 공동 봉사활동 펼쳐

전북 부안지역의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이 종교를 넘어서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와 부안지역 4대 종단 대표는 10월 10일 부안군청에서 '화합과 희망 프로젝트 사업' 협약식을 열고 자원봉사 활성화와 사회통합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 종단은 협력 체계를 갖추고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신도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첫 사업으로 11월 중으로 종단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남양주 슬로푸드 대회서 '불교음식' 인기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 (아시아 구스토·Asia Gusto)가 10월 1~6일 53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고 성공리에 마쳤다.

특히 이번 대회 4일에는 국제관 맛 워크숍에서 한일 불교음식의 비교 체험 코너가 열려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사찰음식의

국내 대가인 선재 스님과 일본 전문가인 후지이 마리 씨가 양국의 불교 음식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밖에 남양주시체육문화센터 내 야구장에서 '걷기명상 및 빙그릇체험' 자리도 마련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 알리는 야단법석

내소사 괘불재 1000여 대중 운집해 산사의 정취 만끽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는 10월 5일 대웅보전앞 마당에 영산회괘불탱화(보물 1268호)를 내걸고 괘불재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내소사 괘불재는 범종 33타에 이어 괘불을 대웅보전에서 철 당간에 내거는 괘불이운, 범패와 영산적법,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발원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문 낭독, 육법공양, 행복한 마음을 담은 기도의 시간인 통천, 음성공양, 괘불을 다시 법당으로 모시는 괘불봉안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괘불재에는 지용현 광주전남 신도회장, 김춘진 국회의원, 김효수 군수, 광주 카일라스 합창단을 비롯해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해 성대하게 봉행됐다.

법광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내소사 괘불 부처님께서 나투신 것은 평등사상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대중들은 탐욕과 미움을 돌려 차별없는 평등과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자"며 "일상생활에서의 행이 순수한 마음의 삼매가 되어 환희 묘약이 될 수 있도록 가피하여 달라"고 발원했다.

진학 스님은 "티없는 가을하늘처럼 이치럼 많은 대중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내소사 괘불재가 지역민들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산사에서 음악회를 즐기며 깊어가는 가을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괘불재에 이어 한국전통무용단 '秀'의 특별공연과 가을산사음악회가 방송인 권영찬 사회로 진행됐다.



10월 5일 부안 내소사에는 1000여 대중이 모여 가을산사의 정취를 만끽했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도산 스님을 비롯해 탤런트 김성한, 가수 김도향, 김정연, 박강수, 은빛무용단, 국악인 최영인 등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 참석 대중들은 가을 밤 산사의 정취에 흥취를 더해줬다. 한편 보물 1268호 내소사 괘불은 높이 10.5m, 폭 8.17m로 조선 숙종 26년(1700

년)에 제작됐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대중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담은 영산회상도이며 석가모니불을 비롯해 다보여래, 아미타불,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명호가 날날이 기록되어 불교미술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회관, 6일 켄 린포체 초청법회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보통)는 10월 6일 큰법당에서 티벳 선지식인 켄 린포체(인도 가덴살체 사원장)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오른쪽 사진>

이날 초청법회에는 김재 금산사 주지성우 스님을 비롯해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켄 린포체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성우 스님은 "절대 확실한 믿음을 의미하는 사불괴정은 불법승의 삼보와 가장 보편타당한 도덕인 계율에 대한 절대 확실한 믿음을 의미한다"며 "도덕한 신심과 부동의 신심으로 생활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법회에 앞서 인사말을 말했다.

이날 켄 린포체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자들이 윤회라는 고리를 극복해 내는 마음 자세와 실천행은 되새겨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생명체들이 지닌 근본마음인 보리심은 최상의 경지인 깨달음을 향



한 가장 근본이 되는 마음이며 윤회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고 설명했다.

켄 린포체 스님은 인도 문헌에 재건된 가덴살체 사원의 총괄 책임을 맡은 사원장으로 2009년에 14대 달라이라마(뎬진 가초)에 의해 책봉됐다. 가덴살체 사원은 티베트불교 겐룩빠의 3대 대표 사원(대룡, 가덴, 세라) 가운데 하나이며 대만에도 그 분원이 설립돼 있다. 켄 린포체 스님은 당초 세계순례대회에 초청되었으나 세계순례대회에 불교계가 불참함에 따라 한국불교계의 뜻에 따르겠다고 참석하지 않고 전북지역의 사찰을 방문하고 이날 법회에서 설법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조 실 회 주 회 주 지 부주지	현 송 원 남 등	봉 암 조 전 등	근 혜 조 전 등	일 승 각 호 성
-------------------	-----------	-----------	-----------	-----------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용담**

교무국장 **성공** 재무국장 **두견**

사회국장 **등안** 호법국장 **정우**

포교국장 **동우**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석우

영주장애인복지관 관장 도륜

의성노인복지관 관장 탄하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등운

안성장애인복지관 관장 이호걸

템플스테이 둘째·셋째주 토요일(1박 2일)
신묘장구대다라니철아장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116)
- ☎ 054)833-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중정법정홍인 총무원장 **혜상**

입증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흥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礙)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증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중도일동

※ 종단입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장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흥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礙)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증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총무원 054)632-2799, 011-228-7813